

국책사업 입지 선정 관련 중앙·지역 신문 간 기사 프레임 비교

Comparison of News Frames between National Newspapers and Local Newspapers about Selecting a Site of National Project

이석능

충남대학교 대학원 언론정보학과

Seong-Neung Lee(abletin@kbs.co.kr)

요약

본 연구는 중앙지와 지역 신문들이 국책사업 입지 선정을 놓고 뉴스의 프레임을 어떻게 달리 구성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2011년 4월 28일부터 5월 28일까지 한 달간의 중앙 일간지와 시도별 21개 지역 신문 기사 중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입지 선정 관련 사실과 '해설 성 기사' 93건이다. 분석 결과 중앙지들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일관성 없는 정책에 대한 '무능한 정부 프레임'과 '재발 방지 프레임'을 가장 많이 구성하였다. 그러나 지역 신문들은 거점지구로 선정된 지역과 탈락된 지역 간에 뉴스 프레임이 심한 대조를 보였다. 선정된 지역의 신문에서는 '발전'과 '성과 프레임'의 비중이, 탈락된 지역 신문들에서는 '무능한 정부 프레임'과 '대항 프레임'의 비중이 높게 나왔다. 한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후보 지역이 아니었던 여타 지역 신문들에서는 과학비즈니스벨트 관련 기사를 거의 기사로 다루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가 말해주는 것은 핼피(PIMFY) 시설 유치를 위한 과열 경쟁이 가져온 지방정부 간의 갈등 현상이 님비(NIMBY)시설 입지 선정에 못지않은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 중심어 : | 국책사업 | 사실 및 해설 성 기사 | 뉴스 프레임 |

Abstract

This study is an analysis of how national newspapers and local newspapers frame news contents over selecting of the site of International science-business belt. The results of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n national newspapers, 'incompetent government frame' to criticize inconsistent policies and 'relapse prevention frame' were most commonly found. Second, newspapers in the region chosen as the site of an International Science-business belt and newspapers in the region not chosen showed a severe contrast in news frames. Most of news frames in the region chosen as the site of an International science-business belt were 'development frame' and 'performance frame'. On the other hand, newspapers in the region not chosen produced 'incompetent government frame' and 'protest frame' more than others. Finally, local newspapers in the area not related with the site of an International Science-business belt did not even deal with such an articles. These results show that to win large-scale national projects such as PIMFI facilities, local governments have been too much competitive and connected to a conflict.

■ keywords : | National Project | Editorial and Commentary Articles | News Frame |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지난 5월 16일 대전광역시 대덕특구가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거점지구로 확정됐다¹⁾.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 발표가 임박해오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관련 뉴스가 연일 신문과 방송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논란이 뜨거웠던 만큼 발표도 서둘러졌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가 공식 발표되면서 동남 권 신공항 건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입지를 포함한 지역 갈등 유발 국책사업 ‘빅3’가 사실상 정리됐다. 그러나 이들 국책사업 입지 선정에서 제외된 지역과 정치권은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인식 부재와 뒤늦은 속전속결로 지역갈등을 증폭시켰다”고 반발하였다.²⁾

이처럼 최근 국책사업 선정과정에서 정부의 혼선과 지역 이기주의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그리고 지역과 지역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핼피(PIMFY) 시설의 입지와 관련한 지방정부 간 갈등 현상은 님비(NIMBY) 시설 못지않은 심각한 양상을 보이기까지 한다¹⁾[13]. 정치인들의 무리한 선거공약과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관성 없는 정책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이 내년 4월과 12월로 다가왔다. 다가오는 선거에서도 후보자별로 수없이 많은 선심성 공약이 터져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이제는 대형 국책사업 입지선정 시 마다 나라를 분열의 낭떠러지로 몰아넣는 사태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언론들은 그 심각성을 강조한다.³⁾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 과정을 놓고 신문들은 지리적 시장에 따라 어떻게 반응하고 기사화했을까?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중앙지와 전국 지역 일간지들 간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을까? 지방지들 간에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선정 지역 신문과 탈락 지역, 그리고

전혀 대상에 들지 않았던 지역 신문들은 각기 다른 입장에서 틀 짓기 하지 않을까?

국가 단위의 민주주의 주체인 중앙정부를 감시하고, 전체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중앙 언론이 필요하다면, 지역단위의 지역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 언론이 필수적이다. 지역사회의 발전도 지역 언론을 통해 모색된다. 지역 언론은 지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제시하고 그 해결 방안을 찾아가기도 한다. 특히 지역의 발전방향과 현안들을 민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바람직한 지역 여론을 형성해 나가는 일을 지역 언론이 담당한다¹⁴⁾.

그러나 미디어의 내용은 우리 주변세계를 거울로 비추듯이 현실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실제의 세계를 서로 다른 모습으로 표현하게 하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미디어 내용이 형성된다²²⁾. 바꾸어 말하면 매체가 운영되고 있는 지역사회의 특성은 미디어 내용에 서로 다른 영향을 준다. 지역사회는 매체가 운영되어야 하는 환경이므로 그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특성은 미디어의 종류와 성공정도에 영향을 준다²³⁾.

자본주의시장사회에서 언론은 하나의 기업이며, 언론 기업의 제일 목표는 시장에서의 생존이다. 따라서 언론은 상품성이 높은 뉴스를 선택할 뿐만 아니라 뉴스의 상품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재구성한다⁵⁾. 이런 점에서 중앙지의 시장은 전국이지만, 지방지의 시장은 발행 지역이다. 그러므로 지방지는 지역민의 이익과 정서를 반영하며 한 가지 사안을 놓고 서로 다른 뉴스 프레임을 형성할 것이다. 야노비츠(Janowitz)²¹⁾에 의하면 지방신문의 소유주나 경영진은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이들은 지역사회 권력구조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앙지와 지역신문의 사실과 ‘해설성 기사’의 분석을 통해 그들이 이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선정과정을 놓고 어떻게 틀 짓기 하였는지 비교해보자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 간의 갈등이 이해관계에 따라, 지역에 따라 어떻게 얽혀져있는지 전체적으로 분석해보자는 것이다. 뉴스의 틀은 독자나 시청자의 메시지 해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며, 이러한 해석에 이

1) 정부는 2011년 5월 16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입지로 대전 대덕단지 안에 있는 신동 · 둔곡지구를 선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거점지구인 대덕단지에는 과학벨트의 핵심인 기초과학연구원 본원과 중이온가속기가 들어서게 된다. 거점지구를 뒷받침할 기능지구로는 대덕단지 인근인 청원, 연기, 천안 등이 지정됐으며 기초과학연구원 소속 연구단은 대덕단지와 거점지구에서 탈락한 광주, 경북 권에 집중적으로 들어서게 된다.

2) 한겨레신문(2011년 5월 16일).

3) 조선일보(2011년 5월 19일) 사설.

용된 생각의 요소(thought elements)들이 곧 개인의 의견을 형성하는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이다[10][20].

II.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뉴스란 일어난 사건을 기자가 객관적 입장에서 있는 그대로 보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터크만(Gaye Tuchman)[24]은 1978년 편집국의 참여관찰 연구를 통해 뉴스를 생산하는 뉴스 조직이 현실 사건을 선택, 가공하고 편집하여 수용자에게 현실을 인식하게 하는 틀(frame)을 제공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다시 말해 기자들이 주어진 이슈를 사회적 규범과 가치, 뉴스 조직의 압력이나 강제, 이익집단의 영향, 편집국의 일상적 관례, 그리고 기자들의 이데올로기적·정치적 성향에 따라 틀짓기(framing)한다는 것이다[8].

이준웅[11]은 프레임 개념에 대한 최초의 논의를 베이튼(Bateson)[16]에게서 찾는다. 베이튼은 의사소통과 메타 커뮤니케이션을 논하면서 ‘맥락의 테두리’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기틀린(Gitlin)[20]에 의하면 프레임은 현실에 대한 인식, 해석, 선택, 강조, 배제를 통해 이뤄지는 지속적인 해석의 패턴이며, 이에 따라 미디어의 담론이 조직화된다.

프레이밍(framing)이란 한 사건의 특정 측면을 강조하는 동시에 다른 측면은 배제함으로써 그 문제에 대한 정의, 인과적 해석, 도덕적 평가나 해결방안 등을 활성화하는 방식[17]으로 정의 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지나친 일반화 가능성이 있지만, 수용자가 뉴스를 특정한 방식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도록 돕는 이야기 구성방식[10]으로, 메시지의 큰 줄기이며 해석의 방향을 정해주는 깃발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6].

아이엔겨아이엔겨(Iyengar)[19]는 뉴스 프레임을 일화 중심적(episodic) 프레임과 주제 중심적(thematic) 프레임으로 분류했다. 일화 중심적 프레임은 하나의 이슈를 사례 중심으로 소개하거나 사건 지향적으로 보도하는 것이며, 주제 중심적 프레임은 전개과정과 사회전반의 구조적 갈등문제를 해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일화 중심적 프레임은 사회문제를 피상적으로 이해하

게 하고 수용자의 감정적 반응을 유도하는 반면, 주제 중심적 프레임은 사회적 문제의 원인과 배경을 이해하는데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 판단을 유도한다.

언론학 분야에서는 1970년대 중반부터 뉴스 분석 연구에 프레임 개념이 도입돼 왔다[6]. 이 가운데 우리와 관련된 해외 연구의 한 예를 보면, 엔트만(Entman)[17]은 대한 항공과 이란항공 여객기 추락사건을 보도한 미국의 신문·방송 기사와 여론조사 결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미디어의 틀짓기에 따라 두 개의 유사한 사건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여론 조사에서 미국인의 95%가 KAL기의 격추를 소련의 소행으로 규정한다 반해, 미국인의 74%가 미국이 이란 항공기를 격추하게 된 것은 기장의 책임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언론보도에 대한 분석력과 설명력에도 불구하고 프레임 연구는 개념 및 이론적 토대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비판 받아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김원용과 이동훈[3]은 ‘언론보도의 보편적 프레임 형식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먼저, 미디어 담론 이론과 기존 프레임 연구를 종합해 기본 프레임을 정황⁴⁾·귀인·배경·가치 프레임 등 4개 유형으로 정리했다. 그런 다음, 1950년대 이후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의 원자력 보도를 4개 유형의 프레임으로 분석한 결과 보편적 프레임 유형화의 유용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2000년 이후 우리 사회에 크고 작은 사회적 이슈가 이어졌는데, 그 중 하나가 2000년 7월 실시된 의약 분업으로 인한 파동이다. 양정혜[7]는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 주요 일간지(한겨레신문과 조선일보) 의료분쟁 보도의 프레임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언론은 의사들보다는 정부에 더 많은 정통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박경숙[6]은 의약 분업과 관련된 방송 뉴스 프레임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의약 분업 관련 방송 뉴스 프레임은 ‘권위주의 정책 뉴스 프레임’과 권위주의 정책 실행에 저항하는 ‘대항적 뉴스 프레임’이 43%로 가장 많이 검출됐다. 아울러 연구자는 우리 방송이 집

4) 행위로 인해 유발된 결과나 행위관계 등에 초점을 둔 경우로, 대부분의 갈등보도에서 나타나는 대립과 대치 상황, 부정적 상황 등이 이에 해당한다(김원용·이동훈, 2005).

단 간에 첨예하게 대립된 의약 분업 문제를 사전에 예지하여, 적절하게 뉴스 프레임을 선택·보도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하였다.

이현우와 이병관[12]은 2003년 국내에서 초미의 쟁점이 되었던 부안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유치라는 갈등적 쟁점의 변화과정과 미디어 보도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신문(조선, 중앙, 한겨레, 전북일보, 오마이뉴스)과 방송보도(KBS1, MBC, SBS) 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쟁점 초기의 언론 보도 프레임 구성에서는 개발에 따른 경제적/재정적 결과, 안전성과 관련한 프레임이 두드러졌지만, 상황이 갈등적 격렬 시위로 확대됨에 따라 그 비율이 현저하게 낮아진 반면, 쟁점 초기 매우 낮은 비율을 보이던 정부책임 귀인, 감성자극 프레임 등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정, 조은희[2]는 2005년 한국의 배아줄기세포 연구 성공이라는 생명과학 이슈가 국가적 맥락에서 어떻게 상이하게 의미화 되는지 한국과 미국의 뉴스 프레임을 비교분석하였다. 갬슨과 래시(Gamson & Lasch)의 뉴스 프레임 개념을 주로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 주요 뉴스 프레임은 한국의 경우 ‘영웅’과 ‘선두’ 프레임인 반면, 미국은 ‘정책(법안) 갈등’과 ‘윤리 갈등’ 프레임으로 나타났다.

이귀옥과 박조원[9]은 대표적인 식품 위해(food risk) 사건인 2005년 김치 파동 관련 보도에서 사용된 정보원, 뉴스 제시방식, 내용에 따른 뉴스 프레임 등을 서울 소재 10개의 전국 일간지로부터 수집된 관련 보도를 통해 분석한 결과, 파동 초기에는 사건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이나 정부의 책임, 사고의 대책 방안이 핵심 내용 프레임이었으나, 점차 경제적 결과가 강조되는 대신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는 뉴스 프레임은 배제됨을 알 수 있었다.

한군태와 조경숙[15]은 개별언론사의 이해관계가 직결돼 있는 2009년 미디어관련법 개정에 대한 보도 프레임을 조선, 중앙, 경향, 한겨레 등 4개 신문을 대상으로 살펴봤다. 연구결과, 신문의 이념적 성향 혹은 입장에 따라 뉴스가 전하는 의미가 분명히 나뉘어 상호 배타적으로 프레임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

이상에서와 같이 최근 10여 년 동안의 사회적 이슈를

다른 뉴스 프레임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뉴스 프레임을 비교한 김수정, 조은희 연구[2]와 한 개 지역 일간지를 포함한 이현우와 이병관 연구[12]를 제외하고는 거의 우리나라 중앙 일간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지역 신문, 더구나 중앙지와 지역 신문 간, 지역과 지역 신문 간 뉴스 프레임을 비교한 사례는 없었다. 사회 체계 내에서 기능하는 각 지역의 신문 언론이 사회적 갈등요소로 작용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선정과정을 보도함에 있어 결정 과정, 그리고 그에 대한 관련 지방자치단체들의 태도, 나아가서 문제 해결이나 합의를 위한 노력들에 얼마나 주목하고 부각시켰는지 뉴스 프레임 을 분석해보는 작업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동남 권 신공항 건설,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전에 이어 지역 간 갈등과 분열을 재현시켰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선정 과정과 결과 발표를 놓고 중앙지와 지역 신문들이 뉴스의 틀 짓기를 어떻게 다르게 하였는지 비교 분석해보기 위해 아래와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한다. 분석 내용은 중앙지와 지역 신문 간, 지역 신문과 지역 신문 간, 탈락 지역과 선정 지역 신문 간 비교이다.

- 연구문제 1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선정 전 후, 관련 뉴스 프레임은 중앙지와 지역신문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나?
- 연구문제 2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선정 후, 관련 뉴스 프레임은 선정지역과 탈락 지역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나?
- 연구문제 3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선정 후, 관련 뉴스 프레임은 서울을 제외한 지역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나?

2. 연구방법

1.1 분석대상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등 5개 중앙 일간지와 시도별 21개 지역 일간지이다.⁵⁾ 지역 일간지는 한국 신문협회 홈페이지에 수록된 회원사 및 한국 ABC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문 중 발행부수가 많은 순으로 선정하였다. 분석 대상 기간은 과학벨트 입지 평가위원회가 2차 회의에서 53개 신청지역 중 10개 지역⁶⁾을 선정한 2011년 4월 28일부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 공식 발표 전날인 5월 15일까지(발표 전)와 발표 일인 5월 16일부터 5월 28일까지(발표 후) 한 달 간이다.⁷⁾

자료수집 방법은 중앙 일간지와 대전지역 일간지는 충남대학교 신문열람실 신문철을 이용했으며, 대전을 제외한 지역 일간지는 각 지역일간지 홈페이지 PDF ‘날짜별 신문보기’를 이용하였다. 대상 기사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 관련 사실과 ‘해설 성 기사’ 93건이다. 따라서 단순 스트레이트기사와 현장 스케치 기사, 칼럼 등은 제외하였다. 제목에 겹 따옴표(큰따옴표)를 사용한 인용기사도 제외시켰다. 또한 중앙 일간지 지역 란 기사도 대상에서 제외시켰다.⁸⁾ 최종 선정된 93건의 기사 가운데 사실이 51건으로 절반 이상(54.8%)을 차지했다.

1.2 프레임 구축

프레임은 연구 대상의 특성에 따라서 연역적 방법과 귀납적 방법 중 하나가 선택되기도 하고 두 가지를 혼합해 적용하기도 하는데, 연역적 접근은 기존 연구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보편적 프레임 유형을 제시하는 방법이고, 귀납적 접근은 정형화된 틀을 전제하지 않고 뉴스 텍스트에서 발견되는 프레임을 모두 찾아내는 방법이다[15].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접근법을 병용해 사용하였다. 연역적 접근에서는 갈등, 무능한 정부, 책임

귀인, 대항 등의 기존 연구자들의 프레임을 적용하였으며, 귀납적 접근에서는 김수정과 조은희[2]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즉, 기사마다 한 건씩의 주제 진술문을 작성하여 서로 긴밀하게 상호 연결되는 것끼리 1차 분류한 후 예비적 프레임들을 가지고 시험분석하고, 2차 재검토와 3차 최종 수정을 통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선정과정 전체적인 맥락에서 중앙지와 지역 일간지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대표적이고 상호 배타적인 10개의 프레임을 구축하였다.

표 1. 본 연구의 프레임 유형별 조작적 정의

프레임	프레임 유형별 조작적 정의
정치벨트	- 선정 과정에서 정치 개입 강조 - 후보지 중 특정지역 편중 강조 - 후보지에서 세종시 탈락 강조
핍피	- 과학벨트 유치전략 제시 - 우리지역이 과학벨트 최적 - 과학벨트 유치 위한 지역 공조 강조
갈등	- 중앙정부와 지역 간 갈등 부각 - 지역과 지역 간 갈등 부각
무능한 정부	- 일관성, 신뢰성 결여된 결정 - 속전속결 식 졸속 결정 - 국민 부담 늘린 지역 나눠주기
책임 귀인	- 갈등의 원인이나 책임의 소재 강조 -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 강조
대항	- 결과에 대한 수용 거부, 법적 대응 강조 - 선정 기준 공개 요구
해결	- 갈등 상황의 해결 방향 제시 - 승복과 수습 강조
재발방지	- 공약폭탄 방지대책 제시 - 국제사업 갈등 근본대책 마련 촉구
발전	- 입지 선정 지역의 책무 강조 - 향후 성공과 발전 방향 제시
성과	- 유치 전략의 성과 강조 - 대덕특구 도약의 신호탄 - 유치 전략의 미흡점 강조

본 연구의 내용분석에는 2명의 코더가 참여하였다. 분석유목의 단위는 기사 1건이며, 분석 대상이 되는 93건 전체 기사였다. 93건 전체에 대한 두 번의 예비 코딩 작업을 한 후 네 번째 최종적으로 코딩작업을 하였다. 코더 간의 신뢰도는 홀스티(Holsti)의 공식⁹⁾으로 추출하였으며, 0.946으로 높게 나왔다.

$$9) \text{ 코더 간 신뢰도} = 2M/(N1+N2)$$

여기서 M은 두 명의 분석자 간의 일치된 코딩의 수이며 N은 개별 분석자의 코딩수이다.

5) 21개 지역 일간지는 다음과 같다.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경인일보, 경기일보, 인천일보, 부산일보, 국제신문, 경상일보, 경남신문, 매일신문, 영남일보, 광주일보, 전남일보,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대전일보, 중도일보, 중부매일, 충청일보, 제주일보, 한라일보.

6) 처음에는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광주, 창원, 포항 등 7곳만 언론에 공개됐으나 청원, 천안, 구미가 추가로 확인됐다(2011년 5월 11일 중앙일보).

7) 5월 20일 이후는 관련 기사가 거의 게재되지 않았다.

8) 지역 란 기사는 지방기자가 지역 입장에서 작성한 경우이므로 대상에서 제외 시켰다.

IV. 연구 결과

연구 대상 기간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선정 전 후 한 달 간 중앙 일간지와 지역 신문별 관련 사실과 '해설성 기사'는 [표 2]에서와 같이 지역 간 큰 차이가 있었다. 5개 중앙지에서는 사실 포함 20건의 해설성 기사를 실었다. 입지 후보지역 신문에서는 관련 사실과 '해설성 기사'를 많이 다룬 반면, 입지 선정 대상지역이 아니었던 지역의 신문들은 전혀 다루지 않거나 다뤄도 대부분 발표 내용만 스트레이트 기사로 짧막하게 처리하였다.

표 2. 지역별 해설성 기사 건수(n = 93)

지역	기사 건수	지역	기사 건수
서울	20	광주, 전남	11
강원	0	전북	0
인천, 경기	2	대전, 충남	22
부산, 울산, 경남	4	충북	15
대구, 경북	19	제주	0
계	45	계	48

* 지역은 신문사 소재지를 나타냄.

1. 연구문제 1의 결과

연구문제 1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선정 전 후, 관련 뉴스 프레임은 중앙지와 지역신문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비교를 위해 [표 2]에 기초하여 지역별로 신문들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 관련 기사 프레임을 어떻게 구축하였는지 선정 전·후로 나뉘어 [표 3-1]과 [표 3-2]를 작성해봤다.

먼저, [표 2]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서울을 제외하고 10개 후보지역에 들지 않았던 지역에서는 선정 관련 뉴스를 아예 다루지 않거나 다뤄도 짧막한 스트레이트 기사로 처리할 뿐 사실이나 '해설성 기사'를 다루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10개 후보 지역, 즉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이나 탈락된 지역 신문은 대단히 많은 관련 기사를 실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다룬 기사는 사실과 '해설성 기사'이므로 많은 관련 기사들 가운데 일부분이다. 따라서 중앙지와 지역 신문 간의 뉴스 프레임 분석은 사실상 중앙지와 선정 혹은 탈락지역 신문 간의 뉴스 프레임 비교라고

볼 수 있다.

표 3-1. 뉴스 프레임의 지역 간 비교 (선정 전)

프레임	서울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북
정치	2(100)	0	3(42.9)	0	12(85.7)
핍피	0	1(100)	4(57.1)	0	2(14.3)
계	2(100)	1(100)	7(100.0)	0	14(100.0)

* n=24, ()= % .충청권 3개 시·도가 공조에 합의하였으므로 하나의 권역으로 묶었다. 이하 같다.

[표 3-1]에서와 같이 4월 28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후보지역 10곳 발표 이후 5월 16일 입지선정 공식발표 전까지 중앙 일간지는 선정 일정에 관한 기사만 다룬 뿐 거의 관련 기사를 다루지 않았다. 단지 진보성향의 1개 일간지만 2개의 정치프레임 관련 기사를 실었다. 내용은 10군데 후보지에 세종시가 탈락된 것에 대한 비판과 삼각 벨트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내용이다. 그러나 지역 신문들에서는 정치 프레임이 15개, 핍피 프레임이 6개나 돼 대조를 이뤘다. 지역 신문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 정치 프레임은 대전, 충남·북 지역 신문의 '세종시 탈락'에 관한 내용들(11건, 63.6%)이었다. 정치 프레임과 핍피 프레임¹⁰⁾은 대전, 충남·북 지역과 대구, 경북 지역 신문에서 가장 많이 생산돼 두 지역 간의 유치경쟁이 치열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표 3-2. 뉴스 프레임의 지역 간 비교 (선정 후)

프레임	서울 경기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북
정치	0	0	2(8.3)	0	3(13.0)
핍피	0	0	0	0	0
갈등	2(10)	0	0	2(20)	0
무능 정부	7(35)*	2(66.7)	2(15.4)	2(20)	0
책임 귀인	1(5)	1(33.3)	2(15.4)	0	1(4.3)
대항	0	0	6(46.2)	3(30)	0
해결	3(15)*	0	0	1(10)	1(4.3)
재발 방지	6(30)	0	1(7.7)	2(20)	2(8.7)
발전	1(5)	0	0	0	8(34.8)
성과	0	0	0	0	8(34.8)
계	20 (100)	3 (100.0)	13 (100.0)	10 (100)	23 (100.0)

* n=69, ()=%. 서울경기 '무능정부'와 '해결' 프레임에 경기지역 신문이 각 1건씩 포함됨*.

10) 자기지역이 최적지임을 강조한다든지, 유치 전략을 제시한다든지, 지역 간 공조를 요구하는 프레임.

[표 3-2]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 공식 발표 후의 지역 간 뉴스프레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5개 중앙지의 뉴스들은 무능한 정부 프레임과 재발방지 프레임이 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일관성, 신뢰성이 결여된 정책, 정치적 속진속결 식 결정 등이 무능한 정부 프레임에 해당하며, 재발 방지 프레임은 대규모 국책사업 결정과정에서 생기는 지역 간 갈등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책이나 근본 대책을 제시하거나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 밖에 관련주체 간 갈등과 대립관계를 다룬 갈등 프레임, '정부 여당, 속제 당당하게 풀고 국민심판 받아야 한다.'는 당장의 해결을 촉구하는 해결 프레임, 책임을 정부 측에 돌리는 책임 귀인 프레임, 선정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해야 할 점을 강조하는 발전 프레임이 각각 한 두건씩이다. 중앙지 가운데 보수 성향의 신문과 진보 성향의 신문 사이의 뉴스 프레임도 차이가 있었다. 보수 성향의 신문들은 '재발 방지' 프레임이 가장 많이 발견되었으며, 진보 성향의 신문에서는 '무능한 정부' 프레임의 비중이 높았다.

지역 신문의 뉴스 프레임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 선정된 지역과 탈락된 지역 간의 극심한 차이를 보이는데 탈락지역의 뉴스에서는 무능한 정부(6건)와 대항 프레임(9건)이 많이 발견됐다. 대항 프레임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결정에 대한 수용 거부, 법적 대응, 선정기준 공개 등의 내용이 담긴 뉴스 프레임이다. 반면에 거점지구로 선정된 지역 신문들의 뉴스 프레임은 지역 간 공조 전략의 성과와 발전 방향을 강조하는 성과 프레임과 발전 프레임¹¹⁾이 대부분이었다.

종합하면 중앙지 뉴스는 거점지구 선정 발표 전에는 한 개 진보 성향의 신문을 제외하고는 관련 기사를 거의 다루지 않았으나 발표 후에는 갈등에서부터 무능, 재발 방지 및 해결책까지 제시하는 프레임들을 폭넓게,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구성했다. 반면에 지역 신문

들은 상황 진행에 따라 거점지구 발표 전에는 정치 프레임과 유치 경쟁과 관련된 핍피 프레임을, 발표 후에는 선정지역에서 성과프레임과 발전 프레임, 탈락지역에서 무능 정부와 대항프레임을 가장 많이 생산해 관련 이슈에 대해 극히 지역 중심적인 반응을 보였다. 10개 후보지역에 들지 않았던 지역 신문들은 거의 뉴스로 다루지 않았다.

2. 연구문제 2의 결과

두 번째 연구문제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선정 후, 관련 뉴스 프레임은 선정지역과 탈락 지역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나'하는 것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 선정된 지역과 탈락된 지역을 2개 권역으로 나눠 비교할 수 있도록 [표 4]를 작성해 봤다. [표 4]에서와 같이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지역 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에서 탈락된 지역과 선정된(공조에 성공한) 지역 간에는 뉴스 프레임에서 극적인 대조 현상을 보인다.

표 4. 거점지구 선정지역과 탈락지역 간 프레임 비교(표 안은 기사 건수)

프레임	탈락지역	선정지역	계
정치벨트	2	3	5
갈등	2	0	2
무능한 정부	6	0	6
책임 귀인	3	1	4
대항	9	0	9
해결	1	1	2
재발 방지	3	2	5
발전	0	8	8
성과	0	8	8
계	26	23	49

$\chi^2=56.47, c=0.732$

탈락된 지역에서는 무능한 정부 프레임, 대항 프레임에 집중됐으며, 갈등 프레임과 책임 귀인 프레임, 재발 방지 프레임이 일부 발견됐다. 그리고 선정된 지역 신문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발전과 성과 프레임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반면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

11) 성과 프레임에 해당하는 기사들은 '충청권 강력한 공조, 한국 과학 발전 기틀 바로 세웠다', '대덕특구 제2의 도약 신호탄', '대덕 특구 과학벨트, 미래 한국 희망으로', '충청이 대한민국 과학진흥 이끈다', '하나된 충청, 과학벨트 이겨냈다' 등이다. 발전 프레임에 해당하는 기사들로는 '과학벨트 성공도 충청권에 달렸다', '과학 백년대계 순항, 예산·콘텐츠에 달렸다', '이제는 과학벨트 활용방안 논의하자', '과학벨트 순조롭게 건설되기를' 등이다.

지구를 유치하기위해 단체장들이 공조에 합의하고, 유치에 성공한 대전, 충남·북 지역 신문들의 뉴스프레임은 성과 프레임과 발전 프레임이 대부분이고, 정치 프레임과 재발방지 프레임이 3건과 2건 씩 있었다. 탈락된 지역 신문에서 발견되는 갈등 프레임, 무능 정부 프레임, 대항 프레임 등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결과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선정을 놓고 후보지역 간의 경쟁이 얼마나 치열했는가를 보여준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에서 탈락한 지역 간에도 뉴스 프레임의 차이가 드러났다. [표 5]에서와 같이 대항 프레임은 대구, 경북 지역 신문에서 가장 많이 발견됐다. 무능한 정부 프레임은 영남과 호남에서 비슷한 비중을 보였지만 갈등 프레임은 호남 지역 신문에서만 발견됐다. 책임 귀인 프레임은 영남권에서만 나왔는데 이는 동남권신공항 건설 백지화에 누적되어 나타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표 5. 과학비즈니스벨트 후보지 간 뉴스 프레임 비교

프레임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북
정치	0	2(15.4)	0	3(13)
갈등	0	0	2(20)	0
무능한 정부	2(66.7)	2(15.4)	2(20)	0
책임 귀인	1(33.3)	2(15.4)	0	1(4.3)
대항	0	6(46.2)	3(30)	0
해결	0	0	1	1(4.3)
재발 방지	0	1(7.7)	2(20)	2(8.7)
발전	0	0	0	8(34.8)
성과	0	0	0	8(34.8)
계	3(100.0)	13(100.0)	10(100)	23(100.0)

※ n=49, ()= %

3. 연구문제 3의 결과

세 번째 연구문제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선정 후, 관련 뉴스 프레임은 서울을 제외한 지역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을 권역별로 묶어서 지역 신문들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선정과 관련한 뉴스 프레임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표 6]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표 6. 서울 제외 전체 지역 간 뉴스 프레임 비교

프레임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충북	인천 경기	강원	전북	제주
정치	0	2	0	2	1	0	0	0	0
갈등	0	0	2	0	0	1	0	0	0
무능 정부	2	2	2	0	0	0	0	0	0
책임 귀인	1	2	0	1	0	0	0	0	0
대항	0	6	3	0	0	0	0	0	0
해결	0	0	1	0	1	1	0	0	0
재발 방지	0	1	2	1	1	0	0	0	0
발전	0	0	0	6	2	0	0	0	0
성과	0	0	0	4	4	0	0	0	0
계	3	13	10	14	9	2	0	0	0

※ n=51, 표 안은 기사 건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에서 탈락된 지역에서는 아쉬움이, 선정된 지역에서는 다행스러움이, 후보지 대상에 들지 않았던 지역에서는 무관심이 뉴스의 프레임을 달리 구성하고 있다. 거점지구에서 탈락된 대구·경북, 광주·전남 지역 신문에서는 대항 프레임이 가장 많이 발견된다. 공조에 합의한 대전·충남 지역에서는 발전 프레임, 충북 지역은 성과 프레임이 가장 많다. 한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후보지에 들지 않았던 강원, 전북, 제주 등 지역의 신문은 선정 관련 뉴스를 단신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사설이나 해설 성기사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전북 지역 신문은 ‘LH공사 본사 입지선정 탈락’ 관련 뉴스가, 강원 지역에서는 ‘2018 동계올림픽’ 유치 관련 뉴스, 제주지역은 ‘세계 7대 경관’ 선정에 관한 뉴스에 더 관심이 있었다. 3개 시·도가 공조했지만 대전·충남과 충청지역 간에도 약간의 프레임 차이가 존재한다. 직접적으로 수혜지역이라 할 수 있는 대전·충남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 ‘발전 프레임’이 충북 지역 신문에서는 1/3 밖에 되지 않는다. 충북 지역은 후보지 10곳에 세종시가 포함되지 않은 것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었다(관련 뉴스 3건).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대통령 공약사업의 하나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선정 과정에서 중앙지와 지

역 신문들이 기사의 프레임은 어떻게 달리 구성했는지 분석해보는 데 있었다. 뉴스의 프레임은 독자들의 메시지 해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며, 이러한 해석에 이용된 생각의 요소들이 곧 개개인의 의견을 형성하는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거점지구 선정 발표 전에는 중앙지들이 이와 관련한 사실과 ‘해설 성 기사’를 거의 신지 않았으며, 10곳 후보지역 신문들은 유치경쟁과 관련 있는 정치 프레임과 펌피 프레임에 집중하였다. 그러나 거점지구 발표 후에는 관련 기사량이 급속히 증가해, 중앙지들은 그동안의 추진과정에서 오락가락 일관성이 없는 정부의 정책 추진을 비판하는 무능한 정부 프레임과 유사한 정책 결정이 거듭되지 않아야 한다는 재발방지 프레임을 많이 구성했다. 이와 달리 지역 신문들은 거점지구로 선정된 지역과 탈락된 지역 간에 뉴스 프레임이 심한 대조를 보였다. 선정된 지역은 발전 프레임과 성과 프레임의 기사를 많이 작성한 반면, 탈락지역은 무능한 정부 프레임과 대항 프레임의 기사를 가장 많이 생산해냈다. 중앙지와 탈락된 지역 신문의 뉴스 프레임의 공통점은 무능한 정부 프레임이었으며, 거점지구로 선정된 지역 신문들의 뉴스에서는 무능한 정부나 대항 프레임을 찾아볼 수 없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선정 과정에서 있었던 갈등은 중앙정부와 지역 간의 갈등이 컸다는 특징이 있다. 동남권신공항 건설 백지화, LH공사 본사 이전 등에서 이어져 온 누적된 갈등인데다 후보지역이 여러 군데에 걸쳐있었으므로 갈등의 폭도 컸다. 대부분 탈락지역에 속한 기능지구와 3개 지역별 캠퍼스 지정에도 불구하고 거점지구에서 탈락한 지역의 신문들은 거점지구 선정이 정치적 결정이라고 보고 대항 프레임을 가장 많이 생산해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접 선출한 1995년 이래, 과거 중앙집권적 시대와 달리, 정부 간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펌피(PIMFY) 시설의 입지와 관련한 지방정부 간 갈등현상이 넘비시설 못지않은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엘리트들의 재선과 같은 자기 이해에 의한 대중추수적인 리더십과 동원전략도 한몫을 한다[13]. 펌피시설의 유치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재정확충에 연결되기 때문이며[1], 지역을 달리하는 신문들의 뉴스 프레임이 서로 다른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국책사업 입지선정으로 인한 갈등과 관련하여 중앙지의 사실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조선일보 사설(2011년 5월 16일)은 “선거편이 본격적으로 달아오르기 전인 올해 안에, ‘특정 지역에 특정 사업을 끌어오겠다는 선거 공약만은 하지 말자’는 대타협을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앙일보 사설(2011년 5월 16일)은 “국책사업을 둘러싼 국력 소모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하며, 프랑스 방식¹²⁾이라든가 국책사업을 회피하는 지역끼리 경쟁입찰을 붙이는 방안까지 포함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중앙일보의 또 다른 사설(2011년 5월 17일)은 “선거인들의 선거 공약이 문제의 씨앗이라면 매니페스토 운동을 넘어 선심성 공약을 미리 차단하는 강력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대규모 국책사업 수혜자 단체에 기피 시설도 함께 쥐야한다는 주장도 있다.

본 연구 결과는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를 놓고 중앙지와 지역 신문 간, 지역 신문과 지역신문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뉴스 프레임이 달리 구성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신문도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므로 기사의 프레임은 신문시장의 규모, 위치, 그리고 이해관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는 지역 신문들이 지나치게 지역 이기주의에 편승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앞의 중앙지 사실들이 지적하였듯이 정치인들의 선거공약과 관련된 대규모 국책사업을 놓고 벌이는 유치전이 국력낭비로 이어지지 않고 나라 전체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대승적인 차원에서 뉴스 프레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논문의 한계에 대해서이다. 본 논문의 분석 대상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역 선정 발표가 있었던 2011년 5월 16일 전 후 한 달간의 5개 중앙일간지와 시도별 21개 지역 일간지 기사 중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 관련 사실과 ‘해설 성 기사’ 93건

12) 프랑스도 이 때문에 고민하다가 중앙정부는 일부만 지원하고 지자체가 대부분의 재원을 부담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해결했다고 한다.

이었다. 전·후로 나눠 시기별로 뉴스 프레임의 추이를 보려 했으나, 거점지구 발표 전에는 대상 지역 신문들 이외에는 정부 발표 내용만 다뤘을 뿐으로, 본 논문이 다룬 사실과 ‘해설 성 기사’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선정 발표와 동시 쏟아져 나와 거점지구 선정 직후의 내용에 치우칠 수밖에 없었다. 유치경쟁 과열로 발표를 앞당긴 데다 공개되지 않은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다. 연구 대상이 되었던 기사가 사실과 해설 성 기사에 국한했던 것도 본 논문의 한계이지만 기사의 대부분이 단순 스트레이트 기사, 관련 캠페인 기사, 인용기사가 대부분이었으며, 중앙지와 전국 지역 신문을 대상으로 분석하다보니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전체 기사를 대상으로 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광범위한 연구는 공동연구가 더 발랄직한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1] 김도희, “NIMBY와 PIMFY 시설입지정책의 갈등 구조 비교분석: ‘복구 화장장 유치사업’과 ‘경부고속전철 울산역 유치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제13권, 제1호, pp.157-188, 2004.

[2] 김수정, 조은희, “생명과학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뉴스 프레임 비교연구”, 한국언론학보, 제49권, 제6호, pp.109-523, 2005.

[3] 김원용, 이동훈, “신문의 보도프레임 형성과 뉴스 제작과정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48권, 제4호, pp.351-382, 2004.

[4] 김원용, 이동훈, “언론보도의 프레임 유형화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49권, 제6호, pp.166-198, 2005.

[5] 문종대, 한동섭, “한국 언론의 지역갈등 재생산 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제13호, pp.7-32, 1999.

[6] 박경숙, “집단 이슈의 방송 뉴스 프레임 분석: 의약 분업 뉴스 프레임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46권, 제2호, pp.310-340, 2002.

[7] 양정혜, “사회갈등의 의미 구성하기: 의료분쟁 보

도의 프레임 분석”, 한국언론학회, 제45권, 제2호, pp.284-315, 2001.

[8] 오택섭, 강현두, 최정호, 안재현, *뉴미디어와 정보사회*, 경기 파주: 나남, 2009.

[9] 이귀옥, 박조원, “식품 위해(food risk)보도의 뉴스 프레임 분석: 김치 파동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제20권, 제5호, pp.260-305, 2006.

[10] 이준웅, “언론의 틀 짓기 기능과 여론의 변화”, 언론과 사회, 제17호, pp.100-135, 1997.

[11] 이준웅, “프레임, 해석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효과”, 언론과 사회, 제29권, pp.85-153, 2002.

[12] 이현우, 이병관, “부안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유치 쟁점에 대한 언론보도 프레임 분석”, 언론과학연구, 제5권, 제3호, pp.616-547, 2005.

[13] 임정빈, “남비와 핼피사레의 비교분석을 통한 지방정부간 갈등관리전략”, 지방정부연구, 제11권, 제3호, pp.155-179, 2007.

[14] 장낙인, *지역 언론과 지역문화*,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15] 한근태, 조경숙, “한국 신문의 공정성에 대한 고찰: 미디어관련법 개정 보도에 대한 프레임 분석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36권, 제3호, pp.133-165, 2010.

[16] G. Bateson, *Steps to an ecology of mind*, New York: Ballantine Books, 1972.

[17] R. M. Entman, “Framing US Coverage of International News: Contrasts in Narratives of the KAL and Iran Air Incidents,” *Journal of Communication*, Vol.41 No.4, pp.6-27, 1991.

[18] N. Fairclough, *Media Discourse*, Edward Arnold, 1995. 이원표, *대중매체 담화분석*, 서울: 한국문화사, 2004.

[19] S. Iyengar, *Is anyone responsible?: How television frames political issu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1.

[20] T. Gitlin, *The Whole Worlds Is Watching*,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0.

[21] M. Janowitz, *The community press in an urban*

setting,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1967.

[22] P. J. Shoemaker and S. D. Reese, *Mediating the Message: Theories of Influences on Mass Media Content*(2nd), 1996. 김원용 역, *매스미디어 사회학*, 서울: 나남, 1997.

[23] W. Philips, J. Boylan, and F. T. C. Yu, *Mass media*,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1982.

[24] G. Tuchman, *Making news: A study in the construction of reality*, New York : Free Press, 1978.

저 자 소 개

이 석 능(Seong-Neung Lee)

정회원



- 2009년 : 충남대 대학원 언론정보학과 박사과정 수료
- 1974년 : KBS 공사 2기 아나운서.
- 현재 : 충남대 출강

<관심분야> : 방송 문장, 방송 편성